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세종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16.(월)	**사진 · 영상**	사진(○), 영상(×)
보도일자	2026년 11월 16일(월)부터		
담당부서	도시환경전문위원	**작성자**	박일용 전문위원(044-300-7471)
			이호 주무관(044-300-7443)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10회 정례회 일정 시작

-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심사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제110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3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7억을 감액한 4,817억 규모로 편성해 제출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소관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금' 제출액 4억 1,000만원에서 2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에 2억 9,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예산안 수정가결 직후 “이번 심사 과정에서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과 악취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불편을 여러차례 문제 제기한 바 있다”며, “연말까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변동비라는 점을 고려해 위원님들과 논의한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시급성 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마을택시 운영 사업의 예산 감액 사유를 질의하며, “사업 여건의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감액으로 인해 읍면 지역 어르신을 비롯한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이 제약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위원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말하며, 국비를 교부받고도 시비를 제때 매칭하지 못해 사업이 사장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란희 위원은 산불진화차량 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확보 이후

시비 매칭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짚었다. 박 위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 세종 시민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박병남 위원은 공장 및 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사업이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 조속하고 철저한 조사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어 박 위원은 “해당 사업 외에도 관내 다른 창고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오래되고 위험하거나 민원이 제기된 공장 등 세종시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